

### 동희오토 사측, 조합원 가족에게 전화 돌려 노조 탈퇴 종용 금속노조, 동희오토 ‘노조 탄압’ 특별근로감독 촉구 ... “원청교섭에 나와야”



날에도 반복되고 있다” 고 성토했다.

최근 동희오토 노동자들이 금속노조에 대거 가입했다. 작년 12월부터 가입 인원이 200명을 넘어서자, 사측 탄압이 본격화됐다.

금속노조가 동희오토 자본의 노조 파괴 시도를 규탄했다.

심인호 노조 기아자동차지부 동희오토분회장은 현장 상황을 폭로했다. 사측은 조합원 부모에게 전화해 아들 교육을 운운하거나, 임신 중인 아내에게 전화해 탈퇴를 종용하기도 했다. 노조 가입자들을 힘든 공정으로 배치하는 식의 보복성 인사, ‘민주노총과 함께하면 폐업한다’ 는 내용의 문건을 현장에 배포했다. 결국 신규가입자 200여 명 중 80여 명이 탈퇴서를 제출했다.

금속노조는 4일 오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동희오토의 조직적인 노조 파괴 책동을 규탄했다. 노조는 노동부에 즉각적인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요구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온전하게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촉구했다.

이인배 노조 경기지부 현대차남양비정규직 지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대차 그룹 매출이 21배 성장할 동안 비정규직의 임금은 고작 2배 올랐다” 며 “노동부가 조사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시간을 끄는 사이 노동자들의 삶은 파괴되고 있다” 고 비판했다.

충남 서산에서 기아의 모닝, 레이, 스톤릭 등을 생산하는 동희오토는 완성차 업계 최초이자 유일한 ‘100% 비정규직 공장’ 이다. 2001년 설립 이후 14개 사내하청 업체로 쪼개 운영하며 노동력을 착취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금속노조는 기자회견에서 ▲동희오토 원·하청의 부당노동행위 즉각 중단 ▲노동부의 신속하고 엄정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원청 동희오토의 직접 교섭 응낙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금속노조는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 촉구 서한을 전달했다.

정상만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현대·기아차가 차 한 대 만드는 인원으로 이곳 노동자들은 두세 대를 만든다” 며 “2005년 노조 결성 당시 130명이 정리해고 당하고 5년 투쟁 끝에 단 9명만 복직했던 비극이 2026년 오늘

# “차별의 시대를 끝내고! 투쟁으로 일터의 지도를 바꾸자”

## 세계 여성의 날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 ... 금속노조 “구조적 차별의 벽을 깨야”

민주노총이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둔 6일 오후 ‘세계 여성의날 정신 계승 2026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성평등 쟁취와 구조적 차별 철폐를 위한 강력한 투쟁의 의지를 밝혔다.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는 것은 단순히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며, 이는 우리 사회의 일자리 양극화를 해소하고 미래를 밝게 만드는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 역설했다.

민주노총은 118년 전 ‘빵과 장미’를 외쳤던 선배 노동자들의 정신을 더욱 절실하게 계승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단순히 사내 복지를 늘리는 수준을 넘어, 성차별적 구조 자체를 뒤엎는 성평등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며 노동조합이 성평등 정책의 주체가 되어 현장에서부터 민주주의를 확장하고 2026년을 성평등 단체협약 쟁취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최저임금이 여성에게는 최고임금이 되어버리는 현실을 타파하고, 임금 공시제 도입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일터에서의 폭력과 괴롭힘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인권의 문제”라며, 정부는 국정과제로 약속했던 ILO 190호 협약을 신속히 비준하여 모든 노동자의 존엄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22대 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에 당론으로 임하라”며 “우리는 일터의 공기처럼 존재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해 끈질기게 투쟁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금속노조는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이 33년째 OECD 성별 임금 격차 1위를 기록하고 채용·고용 형태·승진 등 전반에서 구조적 성차별이 고착화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근 KEC지회의 승소 판결을 동력 삼아 현장의 차별 구조를 타파하고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고 밝혔다.

### “원청교섭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한화오션은 답하라”

#### 금속노조, 노조법 개정 찬성 의원들과 ‘한화오션 원청교섭 촉구’ 기자회견 열어

금속노조와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진보당 의원들은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법원·중노위 판결 무시하는 한화오션, 더는 용납할 수 없다”며 한화오션 교섭 거부 행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번 노조법 개정의

핵심이 하청 노동자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다고 입을 모았다.

금속노조는 한화오션이 원청교섭 1호 사업장이 되어야 한다며 “한화오션 교섭 성사는 개정 노조법이 노동 현장에 제대로 뿌리 내리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